

2012. 9. 3 Vol. 36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 농어가 지원
2012년산 공공비축미 37만 톤 매입 결정

거시경제 동향

2012년 8월 소비자동향지수

현장 여론 조사

영농정보·정책정보 입수 및 활용 실태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농림어업 생산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 농어가 지원

※ 본 자료는 8월 31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 농어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농어업 재해대책법상 재해 복구 지원

○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의 복구를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직접 지원	농어업용 시설복구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
	대파대 · 입식비	보조 50, 융자 3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
	농약대	보조 10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
간접 지원	생계지원비	보조 100	(80만원/농가) 농어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영농(영어) 자금 상환연기	1년	농어가단위 피해율 30~50%
		2년	농어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재해대책 특별융자	융자 100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고교생 학자금면제	보조 100	농어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직접 예시) 시설복구 : 전복 가두리양식장(5×5m, 1칸) 1,094천 원, 비닐하우스 골조 4만 원/m²
 대파대 : 일반작물 220만 원/ha, 엽채류 297, 과채류 392
 농약대 : 과실류 47만 원/ha, 채소류 29만 원/ha
 입식비 : 전복(2cm 미만 350원/마리, 2cm 이상 770원)

* 직접 지원 중 보조금(재난지원금)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간접 예시) 생계지원비 80만 원(양곡 80kg 5가마 해당), 학자금 면제(읍지역) 53만 원

□ 농어업 재해보험법상 보험금 지급

○ 태풍 피해(손해)를 평가한 이후 보험금 지급

- 보상액은 100% 피해를 가정할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금액의 평균 80% 수준**(자부담 20% 기준, 자부담 가입유형: 15%, 20, 30)

※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율('12): 사과 84.9%(전남 86.3%), 배 68.9%(나주 88.8%), 전복 15.1%(완도 11.0%)

※ 1ha 배 재배농가 100% 피해(약 4,000만 원) 가정 시 80%인 3,200만 원 **지원 예상**(자부담 20% 기준. 품종에 따라 보험지급액 차등)

○ 신속 피해조사 후 추정보험금의 50%이내에서 우선 지급

□ 추가 자금 지원

○ 정책자금 지원

- 재해피해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추가 지원(1년 이내, 3%)
 - 농가당 경영비 실수요액 한도내에서 농축산경영자금 추가 지원
 - ※ 이차보전 활용(8.20일 기준 농축산경영자금(2.5조) 집행 잔액: 4,100억 원)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12년 예산 600억 원 중 잔액 507억 원)
 -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으로서 재해 피해 농가에 운전자금 또는 시설 개보수자금을 5억 원 한도 내 지원(3%, 3년 거치 7년 상환)
 -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농업용 대출자금을 대환 처리
- 재해피해어가 특별영어자금 추가 지원(1년 이내, 3%)
 - 어가 경영비 소요액 범위 내에서 영어자금으로 추가 지원(400억 원)

○ 농협을 통한 무이자 지원

- 기 확보된 중앙회 보유 재해대책 자금을 일선조합을 통해 5천억 원 지원(자금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확보 추진)
- 농가 희망에 따라 무이자 용자 또는 복구에 필요한 자재 지원

<금융권 지원대책 (금융위 발표, 8.29)>

- ① 수해복구자금에 대한 우대금리(시장금리에서 1% 감면) 적용
 - NH농협은행은 최장 10년 만기로 1,000억 원 긴급자금 지원 계획
 - 신규대출시 대출관련 약식 절차 적용
- ② 재해 피해 농가 만기 도래 대출은 피해 복구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 ③ 보험 가입자 대상 보험료 납입 및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및 연체 이자 면제,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원
- ④ 재해피해 농어업인에 대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 원 까지 농신보 특례보증(보증료율 0.3%, 보증비율 100%), 간이심사 적용
 - 재난 발생일 부터 6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전액 만기연장
 -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농신보 보증료율 0.1% 적용

※ 본 자료는 8월 29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2012년산 공공비축미 37만 톤 매입 결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매입량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공공비축용으로 2012년산 쌀 37만 톤을 9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할 계획(2011년산 26만 1,000톤)
 - '12년산 공공비축미 37만톤(정곡) 매입계획은 8.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
- 공공비축미 37만 톤은 포대벼 형태로 29만 톤, 산물벼 형태로 8만 톤 매입
 - 농가가 선호하는 산물벼 매입량을 작년(7만 톤) 보다 1만 톤 증량함.
-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RPC(종합미곡처리장)를 통해 매입

□ 소요 예산

- 금번 공공비축용 쌀 구매 비용은 6,801억 원으로 예상
-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제비용을 차감한 가격으로 산정
 - '11년산의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5만 7,570원(조곡, 1등급, 40kg)이었으며, 포장 제비용은 670원(조곡, 40kg)
- 향후 8월 산지쌀값을 기초로 결정한 우선지급금을 매입 시 지급하고,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매입가격을 최종 확정하여 '13년 1월 중 정산할 예정
 - 지급금은 9월초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에 통지

거시경제 동향

2012년 8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8월 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8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중 99로 전월대비 1p 하락**

<구성지수의 기여도>

구분		11.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심리지수1)		99	98	100	101	104	105	101	100	99
(전기 대비 지수차)2)		△3.4	△1.1	2.5	0.2	3.2	1.2	△4.3	△0.8	△0.7
구 성 지 수의 기 여도 (p)	현재생활형편	△0.3	△0.3	0.5	△0.3	0.5	0.5	△0.4	△0.2	0.0
	생활형편전망	△0.7	△0.2	0.7	0.0	0.6	0.4	△0.7	△0.4	△0.2
	가계수입전망	△0.8	0.0	0.3	0.2	0.5	0.0	△1.1	0.0	△0.2
	소비지출전망	△0.5	△0.2	0.5	0.0	0.5	△0.2	△0.7	0.0	0.2
	현재경기판단	△0.5	△0.2	0.2	0.1	0.5	0.3	△0.5	△0.2	△0.3
	향후경기전망	△0.6	△0.2	0.3	0.2	0.6	0.2	△0.9	0.0	△0.2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¹⁾는 전월과 동일**하지만, **생활형편전망CSI는 전월대비 1p하락**
- **가계수입전망CSI는 전월대비 1p 하락**, **소비지출전망CSI는 1p 상승**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구분	11.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A)	8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5	83	86	84	87	90	88	87	87	(-)
생활형편전망CSI	91	90	94	94	97	99	95	93	92	(△1)
가계수입전망CSI	95	95	96	97	99	99	95	95	94	(△1)
소비지출전망CSI	107	106	108	108	110	109	106	106	107	(+1)

1)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전월대비 4p, 3p 하락
- 취업기회전망CSI는 84로 전월대비 3p 하락
- 물가수준전망CSI는 141로 전월대비 5p 상승, 금리수준전망CSI는 96으로 전월대비 9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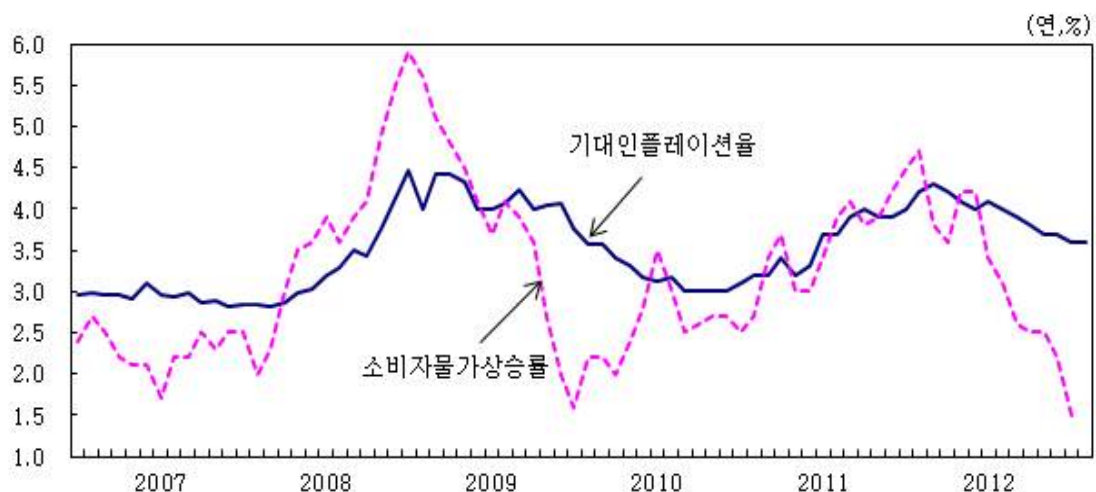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구분	11.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A)	8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68	65	68	70	77	81	74	71	67	(△4)
향후경기전망CSI	78	76	80	82	90	93	81	81	78	(△3)
취업기회전망CSI	82	83	88	90	92	94	88	87	84	(△3)
물가수준전망CSI	146	144	142	141	137	137	137	136	141	(+5)
금리수준전망CSI	118	117	115	116	115	115	107	105	96	(△9)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6%로 전월과 동일
 - 구간별로는 향후 물가가 3.0~3.5%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비중이 22.5%로 전월대비 4.5%p 증가한 반면 3.5~4.5%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비중은 44.4%로 3.1%p 감소

<기대인플레이션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농촌 현장의 관심과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이슈 발굴
- 조사 대상: 현지통신원과 리포터 중 이메일 소지자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기간: 2012.8.23~8.28
- 응답자: 57명

※ 상기 조사는 월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간이 조사(5문항 내외)가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 조사 결과

○ 각종 영농정보와 농업관련 정책정보 입수 경로

- 각종 미디어> 기관홍보지와 보고서> 행사와 교육 참여 등을 통한 대면 입수 순

○ 정보 입수 경로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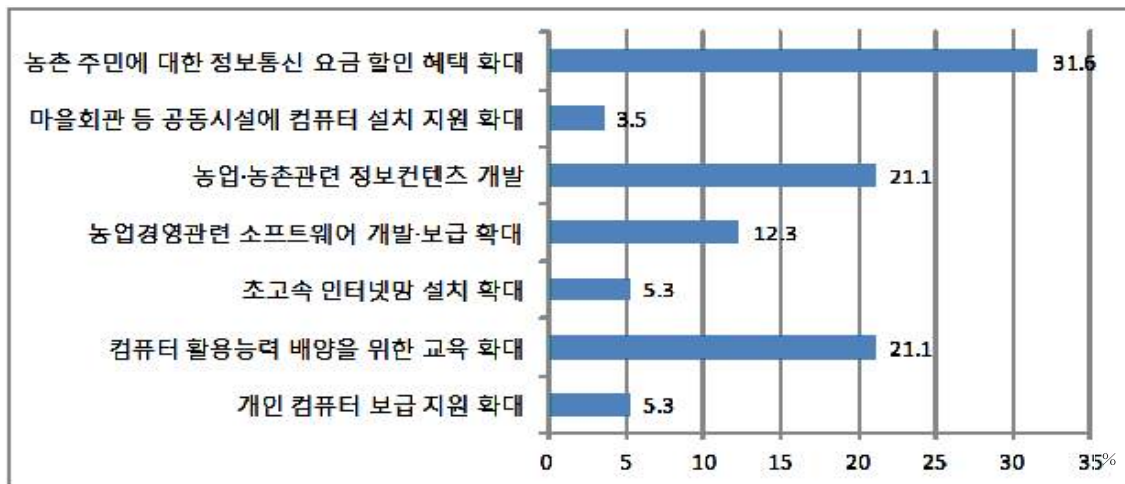
- (미디어) 농업관련 신문, 잡지(70.2%)> 인터넷(19.3%)> 텔레비전(7.0%)> 스마트폰(3.5%)
- (대면입수) 영농교육(50.0%)> 각종 행사(46.3%) > 반상회 등 이웃(3.7%)
- (홍보책자와 보고서) 농업관련기관 정보지(92.7%)> 농식품부 등 정부 홍보지(5.4%)> 시군청 홍보지(1.8%) ‘

○ 정보화 관련 장비 보유 비중

- 컴퓨터(34.6%)> 스마트폰(25.1%)> 케이블TV(18.2%)> 일반휴대폰(11.3%)> 팩스(10.7%)

○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

- 정보통신 요금할인(31.6%)> 정보 콘텐츠 개발·교육확대(각21.1%)> 소프트웨어보급(12.3%)



○ 영농정보와 정책정보를 원활하게 입수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언과 아이디어

- 농업종합정보 제공 전문기관 설치 필요
-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영농교육과 정보제공 강화
- 작목별 연구회를 통한 전문 교육 및 선두자의 실천 사례 등 공유 기회 확대
- 지역별 기후, 토양의 특성이나 주작물에 관한 전문가의 교육 및 정보 제공
- 농업관련 연구결과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활용도가 높아짐.
- 농어촌지역에도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해야
- 농업농촌 콘텐츠 개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 필요
-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정보제공 콘텐츠 개발
- 인터넷 활용 능가 파악, 실시간 영농정보와 정책정보 농가별 이메일 제공
- 정보화 마을을 적극 육성하고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KREI 연장 리포터

▶ 영농정보와 정책정보 입수 및 활용 실태

○ 농업인들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욕구는 큰 데 반해 농촌지역 정보 인프라는 미흡

- 이제 농업을 하는데도 농업관련 정보는 필수적임. 농업경영에 있어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나 유통에 대한 정보, 농업관련 법규 등 이런 모든 것에 뒤지면 경영을 하긴 힘들. 그래서 농업인들은 온·오프라인 모든 채널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욕구가 큰데 반해 농촌지역 정보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 비교적 빠른 정보가 필요한 일기예보 정보는 주로 TV나 핸드폰을 이용하고 농사정보는 농업기술원에서 보내주는 농업용 잡지나 농업관련 신문을 이용하고 있음. 농업관련 법규나 긴급병해충 관련은 관공서 담당부서로 직접 질문하고 있지만 답변을 듣기란 어려움. 이에 여러 가지 정보가 한 경로를 통해 쉽게 얻어질 수 있다면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장석우, 충남 청양>

○ 농업기술센터와 품목조합, 전문지를 통한 영농정보 입수가 일반적

-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과 영농철에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기술센터는 영농정보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임. 축산인들은 주로 업종조합(낙농축협, 양돈축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회원간 정보교류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정책정보는 주로 농민신문, 축산신문 등에서 입수함. <남도성, 충남 당진>
- 영농정보는 동계 영농교육, 농업기술센터 교육과 작목반 회의시 많은 정보를 교류함. 정책정보는 마을 이장 앰프방송으로 접하거나, 영농교육 작목반 회의시 정보를 상호교류함.<전재경, 경북 의성>
- 농업관련 영농정보는 농민신문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교육에 참여하여 얻고 있음. 농민신문은 마을 주민 63명 중 7명을 선정해 배달함. 대다수 농민들은 행정당국의 지시와 농민신문, TV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얻어 조금씩 알고 있음.<나종주, 전남 화순>

- 농촌 주민들은 영농정보를 주로 농민신문을 통해 알고 있으며 TV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있음. 정책정보는 주로 TV나 신문을 통해 활용하고 있음.<김종근, 전남 순천>
- 농사정보는 진흥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메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주로 이용함.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영농교육 참여와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농사정보를 얻고 있음. 농업기술 정보지와 농민신문, 작목반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음.<김기원, 경북 영주>

○ 농업정책 및 영농정보 제공시 매체와 전달방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필요

- 농업정책과 영농기술 정보 제공은 현실성과 효율성이 부족함. 농업관련 정보는 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을 통해 전달되지만 전달 매체나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일부 농업인들을 제외하곤 농업정책, 영농정보 입수와 활용이 용이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및 영농정보 제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조경현, 경북 성주>
- 작목반, 영농교육 등을 통해 농사정보를 얻고 있음. 통계가 나오기는 하지만 기상변화에 따라 수확량, 가격변동이 심해 사실상 의사결정이 주먹구구 식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구됨.<변해동, 강원 홍천>
- 영농정보는 실질적으로 인맥이나 가까운 영농선도자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빠르고 매스컴이나 정부의 발표는 이미 상당히 지난 후에 얻을 수 있어 좀더 빨라진 영농정보가 농업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임.<김병철, 경남 김해>

▶ 농촌지역 연안과 여론

○ 밭작물직불제도 품목과 면적 제한으로 불만

- 밭작물직불제의 등록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 종사자로 당해 년도 밭으로 사용된 농지여야 함. 품목도 과수를 제외한 전 작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밭 면적이 300평 이하인 곳도 신청 가능하도록 해야 함.<전재경, 경북 의성>
- 밭작물직불제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300평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음. 이 제도를 하우스 시설재배만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할 것임.<서준석, 충남 서산>

○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용배수로 높아져 영농차질 우려

- 경남 김해시에서 실시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용배수로 높이가 높아 영농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농로도 폭이 좁아져 위험 요소가 한 두 곳이 아니라 가을 추수가 끝나면 다시 정리사업을 해야할 상황임.<김병철, 경남 김해>

○ 폭염으로 농산물 생산량은 줄었는데 정부는 수입하고...생산비 보장 요구

- 유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여서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음. 폭염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었는데 물가 안정을 빌미로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면세유 영구화, 농작물 재해지원 확대 등 FTA 추진 정책에 따른 확실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김기원, 경북 영주>

※ 본 자료는 8월 27일~8월 31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FTA 무역이득공유제’ 쟁점 부상

- 연말 대선을 앞두고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득공유제(개념: FTA 이행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피해산업에 지원하자는 것)’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정부와 농민단체·정치권이 의견대립. [정부입장] 무역이득공유제는 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조세 외에 별도 법률로 환수토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 농어업 피해지원대책 재원의 상당부분은 기업의 법인세 등으로 충당되는데 추가로 FTA 순이익의 일부를 환수토록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기업들의 수출증대가 FTA 관세인하 효과 때문인지 기업의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증대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수용불가 [농민단체·정치권]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의 법인세 1%를 인상해 농어촌 부흥세를 신설하여 FTA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시킬 필요성 주장

자료 : 농민신문(2012.8.27).

□ 안·EU FTA 발효 우 쟁 ‘무역피해’ 인정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한정택)는 최근 제 306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EU FTA 발효 후 가격이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 시장 점유율 확대가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전북 소재 A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돼지고기 포장육의 시장점유율(물량 기준)은 국내산은 84.76%에서 70.98%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EU산은 5.65%에서 12.22%로 상승. 이에 무역위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A업체를 조만간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에 있음.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

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국내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FTA로 인해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한·EU FTA에 대한 무역조정 신청의 첫 결론**이다”라며 “이번 판단 이후 FTA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의 유사한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자료 : 축산경제신문(2012.8.31).

□ 가을장마...요동치는 농산물 유통시장

- ‘가을장마’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산물 유통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태풍의 영향 등으로 날씨 변동이 심해 향후 농산물 수급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 [배추·무] 배추는 현재 강원 태백을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는데 잦은 비 탓에 무름병이 발생하는 등 작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시장에선 9월 초 무렵 일시적으로 배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반면 산지에서는 아직 부족할 상황은 아니라며 ‘물가관리’를 경계하고 있음. 강원 강릉과 양구 일대에서 출하되는 무도 작황이 나빠지면서 시장 반입이 줄고 있지만 농가들이 장마 이후 품질 저하를 우려해 출하를 서두르면서 일시적인 물량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대파·쪽파·고추 등] 강원 평창 등에서 노지 재배품이 출하되고 있는 대파와 충남 예산 등지에서 생산되는 쪽파는 잦은 비 탓에 상품성 저하가 심각. 건고추는 계속된 비로 인해 품질이 나빠지고 물량도 줄어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음.

자료 : 축산신문(2012.8.27).

□ 옥수수연료, 곡물값 상승 부채질

- **국제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에 대한 국내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사료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계와 바이오연료 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옥수수 생산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고조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2012년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공동보고서를 통해 “국제곡물 수급 상황을 고려해 미국은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호세 그라시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은 “유엔 산하 모든 기구와 G20이 에탄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에탄올 의무생산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그렇지만, 대규모 옥수수농장을 소유한 곡물메이저들이 이 정책을 통해 얻는 수입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농민신문(2012.8.29).

□ 돼지 이력추적 제도 2013년말 전면도입

- 돼지이력제는 돼지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을 제공해 문제가 발생시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이력정보를 제공하여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로써 정부는 10월초부터 브랜드 경영체 등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 초에 30개 업체로 확대, **2013년 말부터는 모든 양돈농장에 적용**할 계획에 있음.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2.8.30).

□ 무허가 축사 개념 재정립에 국토부 반기

- 농림수산식품부가 건축법이 축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해양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 불가**함에 따라 정부당국간 의견대립.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와 재협의를 가진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 그러나 총리실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념 재정립을 나름의 로드맵에 의해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있음.

자료 : 축산신문(2012.8.29).

□ 농촌 의료서비스 불균형 심각

- 농협경제연구소가 27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밝힌 ‘농촌 의료서비스의 수급 불균형 심화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가 지출한 보건의료비는 197만원으로 도시가구의 188만원보다 3.2% 많은 반면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5%에 불과**하여 도시가구보다 소득이 적은 농가가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농촌의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의료 수준은 양적·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지난해 기준 종합병원의 90.4%, 일반병원의 85.2%, 의원 88.8%가 도시에 몰려 있고 특히 농촌의 공중보건의 인력은 2008년 5,028명에서 지난해에는 2,900여명으로 42.3%나 감소하여 의료수급이 불균형한 상태. 이에 농협경제연구소는 농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농촌지역 의료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부증 전문병원 설치 ▲(가칭)농업인 산재보험 신설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업인 가입 확대 유도 ▲농촌지역 병원유치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

자료 : 농민신문(2012.8.31).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농림어업 생산액

※ 본 자료는 8월 30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011년 농림어업 생산액 51조 2,870억 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부문별 생산액

- 2011년 농림어업생산액은 51조 2,870억 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
 - (농업부문) 41조 3,582억 원으로 전년대비 0.8% 감소
 - (임업부문) 1조 8,559억 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
 - (어업부문) 8조 729억 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

□ 2011년 농림업 부류별 생산액

- 식량작물 생산액은 9조 4,633억 원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
 - 쌀(미곡)·두류·서류 등의 농가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생산액이 각각 18.0%, 36.5%, 8.7% 증가
- 채소 생산액은 8조 5,337억 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 과일 생산액은 3조 6,745억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 고추·마늘·양파 등 가격상승으로 전년대비 채소류 2.2% 증가 및 복숭아·감귤 등의 생산량 증가와 사과·배 등의 가격 상승으로 과일류 2.5% 증가
- 축산업 생산액은 14조 9,909억 원으로 전년대비 14.2% 감소
 - 구제역에 따른 돼지 생산량 감소($\Delta 38.7\%$), 한우가격 하락($\Delta 27.9\%/600\text{kg}$ 등)
- 그 외 특약용·화훼·버섯 등 기타작물 생산액은 4조 6,453억 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
 - 특용작물은 참깨·차 등의 생산액 증가로 전년대비 107.2% 증가하고,

약용작물은 오미자의 생산액 증가와 감초·강활·복분자·맥문동 등의
신규품목 추가 등으로 전년대비 58.9% 증가

- 화훼는 전년대비 3.9% 감소하고 버섯은 전년대비 29.4% 감소

○ 임업 생산액은 1조 8,559억 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

□ 2011년 농림업 부류별 생산액 비중

○ 생산액 비중은 축산업(34.7%), 식량작물(21.9%), 채소(19.7%), 과실
(8.5%), 특·약용·화훼·기타(10.8%), 임업(4.3%) 순

○ 쌀(미곡) 농가판매가격 상승으로 식량작물이 21.9%로 20%를 넘는 반면,
축산은 40.2%에서 3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농림업 생산액 순위

○ 생산액 상위 품목의 순위는 ① 쌀(미곡), ② 돼지, ③ 한우, ④ 닭,
⑤ 우유 순이며, 이들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44.5%에 해당

○ 또한 ⑥ 계란, ⑦ 오리, ⑧ 건고추, ⑨ 인삼, ⑩ 감귤까지 포함한 상위 10
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의 59.1%이며, 이들 중 축산업 부문이 6개(2~7
위)를 차지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